

경북도의회운영위원회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양 운영위원회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 및 우수사례 공유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된 운영위원들 간의 간담회는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라남도의회 간담회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 평가, 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정책지원관 도입의 명분인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의

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양 의회 운영위원간 정례적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시행중인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보였고, 지방소멸 대책, 장애인 고용률 향상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특히, 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의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17개 시·도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의회 이철구 운영위원장은 “영·호남이 단합되어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영·호남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타 시·도의 우수사례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은 힘을 모아야 지방의회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충남도의회 반부패·청렴정책으로 지방정치 변화 선도

조길연 의장, 전 직원 대상 특강에서 '청렴'의 중요성 역설



청렴한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한 특강 및 교육, 모니터링 강화 등 충남도의회는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30일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조 의장은 공직자의 필수 덕목인 청렴의 중요성과 깨끗한 도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통해 청렴에 대해 생각해 온 바를 직원들과 공유했다.

조 의장은 앞서 이달 초에도 사무처 직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천을 함께 해 나가자는 편지를 발송한 바 있으며, 이날 특강도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조 의장은 “부패한 사람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무능력하기에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청렴해지려면 다소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변화된 자신을 보면 스스로 자기자신을 칭찬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청렴에 앞장설 테니 직원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지식동아리 ‘청실홍실’(청렴실천홍보실무연구모임) 운영 ▲의정모니터·지역민원

상담소의 반부패·청렴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총괄할 의회 내 기구로 ‘반부패·청렴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2022년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평가 미 실시) 최상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최정근/기자

강원도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본격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조례 제정 및 모집

강원도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민 의견 수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맞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 등을 수렴하고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 마련을 위한 의정모니터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모니터의 주요 역할은 의정·도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도민 불편사항 건의,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등 자치입법 관련 건의, 의정활동 및 현안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 등이다.

의정모니터는 의정, 도정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강원도민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역, 성별, 경력, 연령, 자기소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계획으로 모집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15일 까지이고 의정모니터 지원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된 결과를 6월 중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의정모니터는 1년간 활동하게 되며, 7월에 위촉식과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모니터가 제출한 우수의견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소정의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 방청 등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우수 의정모니터 표창 및 사례 발표를 통해 모니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의회는 업무 특성상 집행부에 비해 일반 도민의 참여가 쉽지 않은 기관인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맞아 도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의정활동 및 도정 발전에 필요한 현장의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의정모니터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도민 중심의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 행복

- 조례 제정**: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규범을 만듭니다.
- 정책대안 제시**: 대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듭니다.
- 예산안 심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살핍니다.
- 집행부 견제·감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지 정책을 체크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줍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원도시재단과 집수리 지원 방안 논의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수원도시재단이 수원시의 노후 주택관리를 위해 25일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후 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성능개선사업 △경관개선사업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및 재해피해가구 등 집수리 사업이 있다.

수원도시재단은 △대상자 맞춤형 주택관리 컨설팅 △집수리 콘텐츠 생산 △집수리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며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자문단과 시공인력 확보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중복수혜 방지 등을 위한 정확한 사업의 안내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의견을 내었다.

조미옥 위원장(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사업구역 지정시 정말 필요한 가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수 시공업체 확보에 힘쓰기를 바란다”며 당부했고, “도시환경위원회가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조미옥 위원장을 비롯한 김경례 부위원장, 유재광 위원, 김미경 위원, 권기호 위원, 김소진 위원



과 수원시 관계부서 및 수원시 도시재단 이영인 이사장 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만식/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 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텐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과 함께 오감으로 즐기는 '맛있는 아리수데이' 첫 행사 개최

31일, 청계광장에서 버스킹 공연, 아리수로 만든 음료 시음 등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31일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아리수를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아리수데이' 첫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킹 공연, 아리수로 만든 커피와 빙수 만들기 체험, 먹는물 물맛 블라인드 테스트, 아리수 정수 과정 시연, 보드마카 그림 물에 띄우기 등 아리수를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은 청계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아리수와 함께 잠시나마 여유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빈백, 파라솔 등으로 휴가지를 콘셉트로 꾸며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이날 버스킹 공연은 인디밴드 6팀이 참여해 오후 12시부터 2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아리수 체험 부스에서는 바리스타와 함께 아리수로 핸드드립 커피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아리수로 만든 얼음을 현장에서 갈아 시민들이 원하는 시럽과 토핑을 얹

어 먹는 '아리수빙수' 만들기 체험도 진행된다. 또, 아리수와 생수를 마셔보고 가장 맛있는 물과 아리수를 맞추는 블라인드 테스트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을 찾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간이 여과장치를 통해 아리수 정수 과정 시연을 볼 수 있고, 보드마카로 그린 그림을 물에 띄우는 미술 체험도 진행한다.

한편,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5월 행사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연내 총 6회 서울 곳곳에서 아리수데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아리수를 먹고 즐기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정에서도 아리수를 믿고 먹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면서 "아리수데이 행사를 비롯해 연중 서울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맛있는 물 아리수를 오감으로 즐기는 기회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은평구, 세계인의 날 기념 '은평 세계문화축제' 성황

서울 은평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은평문화예술회관 및 녹번서(근린)공원에서 세계인의 날을 맞아 '은평세계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제16회 세계인의 날 5월 20일을 맞아 여러 나라의 음식, 전통놀이, 공연,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장으로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

축제에는 은평 지역 내-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등 2천 5백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기념식 및 세계문화공연은 한국 대표 북춤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공연으로 스페인 플라멩고, 프랑스 샹송, 브라질 삼바, 아프리카 악기 전통 공연으로 문화 감수성을 자극하며 다채롭게 무대를 채웠다.

최민식기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 악기, 가면, 문자 등의 전시품 해설 안내했다. 한국 투호던지기, 필리핀 티니클링, 일본 긴교스쿠이 전통놀이와 몽골 어니스 퍼즐 및 중국 가면만들기 등의 체험을 제공했다.

베트남 논라 모자 만들기체험 부스와 인도네시아 고깔밥, 스페인 뽀곤또마메, 중국 탕후루와 용티아오빵 등의 음식체험 부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이 전통의상을 입고, 직접 체험부스도 운영하는 등 내-외국인이 서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며 다문화 사회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2023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聽)' 운영

관악구가 학교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내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廳)'을 운영한다.

2021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廳)'은 구청장이 직접 관내 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만나고 학교와 지역의 현안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5월 25일 문명여고를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총 6개교, 중등 8개교, 고등 11개교를 찾아가며 공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 청취에 나선다.

관악구는 지난해까지 총 16개교, 중등 18개교, 고등 15개교 등 총 49개교를 대상으로 365개 건의사항과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총 42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주요 교육경비 지원내용으로는 ▲급식실·컴퓨터실 환경개선 ▲

운동장 배수로·음수대 배관 교체 ▲생태전환교육 학습장 조성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등하굣길 주차단속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보도블럭 정비 ▲CCTV 확충 등 구청의 협조가 필요한 건의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한편 구는 올해 교육경비를 80억 원까지 확대해 학생 심리·정서 지원, 학폭 예방 교육 등 학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올해 신규로 지원할 '인공지능 기반 코딩 및 4차 산업 미래 인재 양성 교육'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학교 특화 공간 조성' 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학교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울 중구, 충무창업큐브 창업실 입주자 모집

서울 중구가 '충무창업큐브'의 입주자를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무창업큐브는 2018년 개관한 청년 창업지원기관으로 스타트업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별창업실을 대관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넓은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자 간 네트워크 형성 등 초기 창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관은 현재 비어 있는 2개실(4인실 1개, 1인실 1개)에 입주할 청년 창업자를 모집한다.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이 있거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1년 이내에 창업 계획이 있는 자 또는 창업 후 3년이 되지 않은 초기 창업자는 지원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2023.5.16.)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거나 중구에 사업소재지를 둔 만 19세~39세 청년이어야 한다.

입주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실적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용료는 월 1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공공요금은 따로 받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대표자가 직접 중구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서류 검토 후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2차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창업자의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아이템의 시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결과는 6월 13일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14일에 입주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청년들이 충무창업큐브를 통해 사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져나갈 수 있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영등포구, '세계환경의 날' 맞이 지구사랑 친환경 행사 개최

6.2.(금) 10시부터 유공자 표창, 자가발전 솜사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진행

영등포구가 제28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6월 2일 오전 10시 당산근린공원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5일은 28회를 맞은 세계환경의 날로써, 구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love earth, love green' 주제로 기후위기 속에서 지구를 사랑하고, 녹색성장으로 도약하는 영등포라는 의미를 담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환경보호 인식을 높이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구는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개인,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 10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한다.

아울러 구는 2050 탄소중립 시민 실천단, 시립문래청소년센터와 함께 ▲자가발전 솜사탕-비눗방울 만들기 ▲컬러링 색칠놀이 ▲미니 전통부채와 해충퇴치 계피 가랜드 만들기 ▲해양업사이클링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의 장을 진행한다. 또한 QR코드를 이용해 지구를 위한 다짐을 남기기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구는 생활 속 탄소중립과 친환경 실천 활동을 이끌기 위한 에너지 절약, 1회용품 줄이기, 에코마일리지 안내, 탄소중립 실천법 등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홍보활동도 펼친다.

한편 구는 ▲지역 내 저소득가

구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급식시설에 친환경 조리장치(인덕션)와 조리휴저감장치(실내는 공기청정기, 외부는 집진기 등) 설치 ▲ESG 연계 전자출판물 도입 ▲기업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을 추진해 생활 속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해 세계환경의 날 축제는 지구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연과 인류의 공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등 건강한 지구를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서초구, 동주민센터서 CCTV 관제해 재난상황 초기 대응한다!...전국최초

구, 재난상황 대비

'동주민센터 CCTV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수해 입은 5개동에 설치

서초구가 폭우·폭설 등 각종 재해를 대비해 구청 CCTV 관제시스템 뿐 아니라 동주민센터서도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 CCTV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동주민센터 CCTV영상관제시스템'은 폭우·폭설 발생 예보 시 구청 서초스마트허브센터 내 운영 중인 약 5천 개의 CCTV 중에 해당 동의 CCTV를 볼 수 있도록 구가 동주민센터에 권한을 부여, 신속한 현장 확인 및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은 폭우·폭설 대비를 위한 '신속성', '효율성', '보안성'이 특징이다. 즉 폭우·폭설 대비 비상근무시 동주민센터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순찰에 의존하는 기존 대응방법의 한계를 보완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동주민센터에서는 CCTV 영상으로 실시간 재난 상황을 확인 후 신속히 해당 위험 시설에 출동해 대응할 수 있다. 또, 현장 상황을 파악해 예측 가능하며, 한정된 동주민센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구는 실제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챙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치장소는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5개 동주민센터다. 구는 외부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 관제센터를 설치했다. 또, 재난 예보 외에 평시에는 영상을 볼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힘썼다.

장비는 컴퓨터 1대, 모니터 2대, 각종 통신·보안장비 등이 마련됐다. 이에 동담당자는 1대의 모니터로 영상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나머지 모니터 1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등 위치정보를 볼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제공받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란, 업무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위에 다양한 정보들을 표출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CCTV, 보안등, 자가통신망, 맨홀 등 시설물 위치 정보 등을 직관적

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여름철 수해 대비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작년 1200개 설치했으며, 현재 335개를 추가 설치 중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소규모상가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판 설치 지원, △CCTV비상벨 스피커와 민방위 비상경보시설을 활용한 재난방송 실시, △집중호우로 응급상황 발생시 이동식 휴대용 물막이 지원, △반지하주택 안전을 위해 어르신·아동 대피 지원을 위한 동행파트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수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동주민센터 CCTV영상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관리 대응체제를 마련해 주민 안전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송파구, 재난상황 실시간 영상중계 시스템 구축해 '재난 골든타임 확보'

송파구가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가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공유 시스템'은 송파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송파구 전역의 재난 상황을 관제하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는 즉시 현장 CCTV 영상과 발생위치 정보를 송파구 재난상황실과 재난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송출, 중계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목표로 5월부터 사업비 약 9천만 원을 투입해 재난 상황 영상을 즉시 공유하는 '실시간 영상중계 시스템'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재난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관제센터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는 8월부터는 재난이 발생하면, 송파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관제하고 있는 CCTV영상을 웹(Web)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재난 및 중합상황실 등에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동시에, 재난관리자의 모바일 단말기 앱(APP)에 재난 발생위치와 실시간 영상을 표출되도록 연계해 제공한다. 또, 재난 발생 관련 부서장 등 재난관리자에게 모바일 푸시알림 등으로 상황을 전파해 즉각적

인 초동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구는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발 빠른 대응으로 재난상황의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구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인파 응·복합 분석플랫폼' 구축, 방범용 CCTV 지능적 확충 등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송파구 CCTV통합관제센터 전담공무원과 경찰관이 극단 선택을 예고한 학교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으며, 5월에는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용의자를 조기 검거하는 성과를 이룬바 있다. 구는 현재 총 1,313개소에 총 3,250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1,200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정확한 현장정보 공유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중 24시간 실시간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최우선에 두고,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원식기자

경기도, 환경의 날 기념 '환경교육주간' 6월 1~3 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

6.1(목),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식과 함께 '환경교육주간' 행사 개최(6.1~3)

경기도는 제28회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6월 1일부터 3일까지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연다.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행사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환경의 날이 포함된 한 주를 지정해 다양한 환경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환경교육 주간은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환경교육 도시로 선정된 후 처음 여는 행사다. '지구를 위한 나의 첫 번째 환경교육주간'을 슬로건 아래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없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기념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환경제도에 대한 설명회 등 환경정책한마당 ▲지속가능발전 북 콘서트 ▲폐자원 업사이클 체험, 교육·전시·홍보부스 ▲벼룩시장(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경기 RE100 비전 선언에 동참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용 없는 대중교통+셔틀버스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 일회용품 없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정책을 반영한 저탄소 친환경 행사로 진행한다.

1일 오전 10시 30분 생명과 에너지 넘치는 지구를 상징하는 청년밴드 로레이(Hoory) 공연으로 시작되는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각 분야의 환경유공자 등에게 표창장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5가지 숲, 해양, 유아, 마을, 탄소중립 주제별 워크숍과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원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한국건설자원협회,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이 돼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기후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의 역할 등 환경 정책에 대한 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교육사 경연, 교구 경진 대회가 열리고 대기환경 이동측정

차량, 에너지저장장치(ESS) 트럭, 에코롱돌 체험버스, 해양환경 이동 교실 등 체험 버스가 운영된다.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활용한 치약짜개 만들기, 우유 팩 지갑 만들기, 장난감 분리 배출하기, 친환경 세제 만들기, 페플라스틱을 활용하여 화분 만들기, 미니 스마트 팜 만들기, 자투리 원단을 활용한 키(key)링 만들기, 친환경 제품 전시, 경기 RE100 홍보부스 운영,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환경교육 교재·교구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마지막 날엔 친환경 가치소비에 위한 벼룩시장이 열린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환경의 날 행사가 환경인들의 소통의 장이 되고, 누구나 환경교육이 즐겁게 배우고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실천 방안을 배우도록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고양특례시, 청사 이전 반대 측과 의견조율 토론회 개최

고양특례시는 25일 백석동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청사 백석 이전과 원안 건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정형 제2부시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 김승용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장이 참여했다. 이전 반대 측에서는 김명식 은혜로교회 목사, 김동원 고양원당공공재개발 준비위원장이 참석하여 청사 이전 및 원당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사 백석 이전과 주요동, 성사동 일원 개발 계획인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한 이후 원당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안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청사 이전 및 원당 발전을 위한 소통 창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사 이전과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자리가 부족하여 오해가 쌓인 부분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해 청사 이전과 원당 발전에 대해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광주시 10개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호주 파견 큰 성과

광주시 소재 10개 기업으로 꾸러진 광주시 해외시장개척단이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총 89건, 1286만6000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호주 현지 사전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10개 업체를 대양주 해외시장개척단으로 선정, 14일 호주로 파견했다. 참여 기업은 사전에 매칭된 바이어들과 14일부터 20일까지 현장에서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시드니에서 46건 522만6000달러, 멜버른에서 43건 766만달러 상당의 상담이 진행돼 추후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의 개척단 일행에 대해 1인당 항공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한편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시장성 조사, 바이어 매칭,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광주시 관계자들은 수출상담이 진행되는 기간 호주 마리비농시(City of Maribyrnong)의 초청을 받아 램 쿡 부시장, 실리아 해덕 시의회 의장 등과 도 도시 간 경제협력과 우주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는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 10개기업을 파견해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 담당자들의 현지 파견을 통해 관내 기업의 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 향후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인천시 미추홀학산문화원, 랫츠古 관아체험 '인천도호부가 살아있다!' 참여자 모집

인천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은 6월 3일과 4일 인천도호부 관아를 생생하게 만나보는 체험 프로그램 랫츠古 관아체험 '인천도호부가 살아있다!'를 오전 10시~13시, 오후 14시~17시 총 4회차에 걸쳐 인천도호부관아 재현물 일대에서 진행한다. 본 사업은 미추홀구가 주최하고 미추홀학산문화원이 주관하며 문화재청, 인천시가 후원하는 '2023 생생문화재 - 비류, 문학산에서 내일을 품다'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인천도호부가 살아있다!'는 7가지 역할극을 통해 조선시대 지방 행정을 담당한 관아의 기능을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는 관객몰입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이 역할극마다 주어지는 역할에 몰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인천도호부관아의 역사, 건물별 기능과 특징, 육방의 기능 등 자연스레 지역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또 각 역할극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낼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된 인천도호부의 역할과 기능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선으로 풀어낸다.

문화원 관계자는 "우리 지역 문화재를 생생하게 향유하기 위해 해설과 관람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 우리 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하고 애정을 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수원시, '효도업소' 모니터링

수원시가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효도업소' 195개소를 6월 30일까지 모니터링한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는 할인 연령, 할인율, 할인 항목 등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설정해 어르신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다.

담당 공직자, 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이 효도업소를 방문해 할인내역 변동 여부·실제 어르신 이용 횟수 등을 점검하고, 업소가 선호하는 인센티브·운영 만족도를 조사한다.

일반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안경업으로 등록된 수원시 소재 업소가 효도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이·미용업 126개소, 음식점 28개소 등 195개소를 효도업소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지정 업체에 인증 표지판(현판)을 부착하고, 업종별로 맞춤 용품을 지원한다.

최만식/기자

시흥 공무원들이 전하는 시흥교육방송 'THE SEN 시흥교육뉴스' 첫 보도 '눈길'



지난 4월 말 개국한 'THE SEN(Siheung Educational Network) 시흥교육방송'이 지난 26일 첫 뉴스보도를 시작했다. 특히 시흥시 교육자치과 직원들이 직접 뉴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앵커를 비롯해 뉴스 코너마다 전문 진행자 대신 시흥교육방송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투입돼 흥미를 더했다. 그중 시흥시의 다양한 교육소식을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알려주는 '99초 뉴스'는 더욱 흥미를 끌었다. 숫자가 99에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해 0을 향해 내려가고 타이머

가 멈추면 마이크가 꺼지는 흥미로운 코너 방식으로 구성돼, 진행자는 99초 안에 준비된 소식을 정확한 발음으로 빨리 알려야 한다.

'시흥미래교육포럼 발대식', '학년별 마을교육과정 도시재구성' 등 준비된 교육단신 여섯 꼭지를 평균 16초 내외로 전달해야 하므로 시청자에게도 긴장과 재미를 더했다. 미션 성공 여부는 유튜브 'THE SEN 시흥교육방송' 채널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도 직원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간섭카메라 남다른 시선' 코너 진행을 맡은 직

원은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에서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했다.

이외에도 '현장 그 잡채' 코너에서는 스승의 날 특집으로 일상회복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하게 된 스승의 날 학교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THE SEN 인터뷰 대담하다'코너에서는 고미경 시흥시 평생교육원장을 초대해 인터뷰가 진행됐다.

'THE SEN 시흥교육뉴스'는 기존 뉴스 진행방식과는 달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위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형식의 콘텐츠를 연이어 송출하면서 시흥 교육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평이다. 새롭게 올리는 콘텐츠마다 동 시간 기준으로 예전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조회 수가 치솟고 있다.

시흥교육방송은 뉴스 외에도 예능, 다큐,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시민들에게 시흥의 교육 정보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알릴 계획이다.

'THE SEN 시흥교육뉴스'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THE SEN 시흥교육방송'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

신우용/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청소년의 날 행사서 "글로벌 리더 성장토록 값진 경험 선사할 것"



이현재 하남시장은 27일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하남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2회 하남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기념사를 통해 "여러분의 꿈과 호기심이 훗날 현장투어, 국제 청소년 문화교류 등 다채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하남시 청소년의 날 행사는 지난해 2월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에 따라 5월 넷째 주 토요일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올해 기념일은 체험 및 먹거리 부스 운영, 식전 공연, 제5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 주요 내빈 기념사·축사, 관객 참여형 청소년 진로 연구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진행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에서는 지난 4월부터 체 대표자 등에게서 추천받은 대상

자 30명 중 하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8개 부문 수상자와 대상 수상자 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하남시는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 및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의 눈높이를 높이는 경험치를 늘려주기 위해 ▲서울대 등 9개 대학을 탐방하는 대학교 투어 실시 ▲삼성이노베이션유지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투어 진행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을 통한 청소년 시정 참여 기회 제공 ▲국제 청소년 문화 교류(리틀락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 속 전문성을 갖춘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건의(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분리) ▲가칭 한울중(미사5중) 및 가칭 청아고(미사4고) 신속한 개교 추진 ▲학생 역량을 강화하는 고교학력 향상사업 및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교 특성화 사업 시행 등을 진행 중이다.

박강호/기자

안양시, 제25회 청소년축제 우천 속 '뜨겁게' 성료

청소년의 날 시상식, 안양시 청소년상 5명 등 부문별 유공 총 26명 시상



안양시는 지난 27일 평촌중앙공원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제25회 청소년축제와 청소년의 날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축제를 기획하고 주관한 동안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축제기획단은 갑작스러운 비 예보에 시민 안전을 고려해 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 공연을 일부 조정해 진행했다.

이날 우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등 많은 시민이 평촌중앙공원을 찾아 요술나비-라벤더화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시 승격 50주년 기념 4컷 사진찍기, 안양 미래 100년 소망엽서 쓰기 등 36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축제를 즐겼다.

특히, 오후 3시 30분 공원 중앙무대에서 펼쳐진 청소년 공연에서는 4팀이 열정적인 댄스 공연을 선보여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끌어올렸다.

이날 안양시 청소년상 시상식은 오후 4시 30분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청소년축제기획단 민성훈 학생과 청소년참여위원회 김하은 학생의 사회로 안양시 청소년상 및 경기도 모범 청소년 표창 등 부문별 시상 진행했다.

올해의 안양시 청소년상에는 ▲평촌경영고 조승연(봉사부문) ▲부흥고 우해민(효행부문) ▲안양예술고 홍수인(문화예술부문) ▲평촌고 강지후(체육부문) ▲부흥고 안예진(과학기술부문)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양시 청소년축제기획단은 "지난 2월부터 시 승격 50주년과 청소년축제 2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다"며 "비로 준비한 것들을 모두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어 뿌듯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랜 시간 땀과 열정으로 축제를 준비한 청소년 축제기획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축제가 준비한 청소년, 함께한 청소년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겪는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서현 청소년축제기획단원은 "지난 2월부터 시 승격 50주년과 청소년축제 2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다"며 "비로 준비한 것들을 모두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어 뿌듯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랜 시간 땀과 열정으로 축제를 준비한 청소년 축제기획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축제가 준비한 청소년, 함께한 청소년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겪는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관내 각급 학교 교장들과 지속적 만남 통해 교육현안 해결 주력

초등학교 교장 70여명 만난 데 이어 최근 이틀간 중학교 교장 38명과 간담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관내 학교 교장들로부터 학교별 현안이나 교육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 시장은 25, 26일 이틀간 용인특례시청에서 지역 내 중학교 교장 38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교장들은 학교별 교육현상의 문제와 고충을 설명하면서 시와 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연락도 환영한다며 소통의 창을 활짝 열었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 주변 도로 반사경 설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즉석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관계 부서에 가능한 한 속히 도울 것을 지시했다.

전기료 인상으로 학교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 등 경기교육청이나 용인교육지원청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다수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강조했다. 교장들은 학교 주변 도로를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기 어려운 시각의 사각지대가 일부 있다며 반사경 설치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교장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곳을 살펴보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관내 학교들 주변도로를 점검해서 필요한 모든 곳에 반사경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학교시설 개방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시민을 위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와 안전의 문제가 파생되는 만큼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개방 기준, 이용자 준칙, 학교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 정교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가 TF를 만들어 교육지원청 등과 논의하고 7월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겨울철에 눈이 내릴 경우 학교 앞 인도 제설에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시장은 지난 겨울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인도 제설차량을 9대 구입해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과 비탈진 곳 등부터 제설했다며 관내 학교 지도를 만들어서 학교 주변 인도에 쌓은 눈을 치우는 작업에 시의 인도제설차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중학생들의 현장 학습 및 체험활동과 관련해 시의 버스 지원을 희망하는 일부 교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용인 관내 중학교 교장협의회 대표로, 이틀간의 간담회에 모두 참석한 이현중학교 윤병찬 교장이 "앞으로 각 학교들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하자 이 시장은 "건설적인 제안으로 생각하며 교육지원청과 논의하겠

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 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며 "시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급 학교, 경기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해서 현안을 풀어나가고 교육투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중학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세 차례에 걸쳐 용인특례시 초등학교 교장 7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안 해결과 교육발전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 시장은 오는 6월엔 관내 고등학교 교장들과도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시의 관계자가 밝혔다.

최만식/기자

광명시민, 남북평화철도 재개와 KTX광명역 출발역 지정 염원

광명시민 250여 명, 26일 평화통일 염원하며 도라산 열차기행

"평화통일! 남북평화철도! KTX광명역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광명시민들이 지난 26일 KTX광명역에서 도라산역까지 당일 왕복하는 '열차 기행' 행사를 진행하며 남북평화철도 KTX광명역 출발을 염원했다.

함께 걷는 DMZ 평화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공개 모집한 광명시민 250여 명과 박승원 광명시장



이날 평화행사에서는 도라산역에서 도라산평화공원까지 평화를 염원하는 걷기 행사, 평화 시 쓰기 백일장, 염원 리본 달기, 평화엽서 쓰기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제사회가 평화보다는 대립과 전

쟁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시 평화로 돌아와야 한다"며 "KTX광명역에서 출발하는 남북평화철도가 평화의 시작이 되고, 오늘 시민들의 평화 외침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통일을 위해서 통일 이

전에 남북평화철도 연결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염원으로 남북평화철도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며 답보 상태인 남북평화철도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평화행사에서도 박승원 시장과 시민들은 '남북평화철도가 광명시민들의 염원으로 KTX광명역에서 출발했다'는 내용으로 '선포식'을 갖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북평화철도 추진을 염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광명시민 김춘년 씨는 "광명시민들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저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백지화라는 평화를 얻어낸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민과 국민 모두 염원한다면 남북평화철도 재개와 평화통일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KTX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 의지를 내비쳤다.

윤용민/기자

행안부 차관 만난 이권재 오산시장, "기준인건비 현실화에 시민 안전·복지 달렸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

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준인건비로 인해 오산시가 필수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제1차관은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 상황)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 어떤 공통인지 알고 있다"며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1년 기준 오산시 결산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를 과대 지출하지 않지만, 행안부 기준으로 볼 때는 16%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오는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 초과집행 금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으며, 오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100억 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실행되는 2025년부터는 SOC 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투입해야 할 100억 원가량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1989년 시 승격 당시 6개 행정동으로 출범한 오산시는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6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민선 8기 시정에서는 대원동, 신장동의 분동 작업에 착수했지만, 기준인건비 장벽에 가로막혀 인력 순증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세교2지구 개발 완료에 따라 오는 2025년 입주가 완료되면 오산시 인구는 30만에 다라르게 된

다. 인구 유입 및 기반시설 증가에 필요한 행정인력의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이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제·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전담 기구 및 인력을 두도록 돼 있지만, 기준인건비 증액 없이는 인력 순증이 불가능하다.

이권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라며 "최소한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규모의 형평성을 맞춰 준다면 시민들에게 더 높은 행정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곡하게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11월 행안부를 직접 방문하고, 지난 21일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에게 건의한 데 이어 3번째 적극행정에 나섰다.

양서현/기자

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1심 재판 무죄



정장선 평택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시장은 3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으며, 시정이 압

수수색을 받은 등 지난 1년 가까이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했고, 개인 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고를 해주신 재판부와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와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양서현/기자

경북의 이야기를 잇다, 경북형 브랜드 팝업스토어 '마켓054' 오픈



3대문화권 주민사업체 및 경북 우수 브랜드 제품을 한 공간에

경북도는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 달간 영천 화랑설화마을 그린스테이션에서 팝업스토어 '마켓054'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켓054는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으로 발굴된 주민사업체 제품을 비롯해 경북에 소재한 우수 브랜드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로컬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오프라인 콘텐츠 팝업스토어다. 경북 로컬브랜드가 지닌 다양한 이야기를 잇고, 경북 곳곳에 숨겨진 새로운 매력과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마켓054에서는 한울(고구마말랭이), 심박(샤인머스켓 주스) 등 8개의 영천 소재 브랜드를 비롯해 비네스트(그릭요거트, 영주), 별맥(수제맥주, 경산) 등 총 30개의 경북 로컬브랜드 제품을 팝업스토어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또 참여형 체험부스, 3대문화권 대

표 캐릭터 토크프렌즈(도도, 방구, 구름) 포토존, 포토부스, 인디밴드 공연, 현장방문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돼 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마켓054 팝업스토어가 경북도 주민사업체 생산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관광 주민사업체와 상생 발전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 콘텐츠 창출과 경북 로컬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구미시민이라면 특별한 혜택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미시는 30일 부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구미시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발굴해온 90여 건의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및 부서 간 협력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핵심 시책 뿐만 아니라 시가 최근 공멸여 추진하고 있는 관내 전입자에 대한 지원과 구미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보고회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발굴해온 90여 건의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및 부서 간 협력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핵심 시책 뿐만 아니라 시가 최근 공멸여 추진하고 있는 관내 전입자에 대한 지원과 구미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시는 우선 전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23.8월)부터 전입세대 당 일선정품 쌀 10kg 등 구미농산물을 전입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는 전입지원금을 전입 후 1년에 걸쳐 20만 원씩 지급한다. 또한, 구미로 전입한 시민이 즉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입일로부터 1년간 경영주차장 무료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12회 가량 펼쳐지는 기획공연에 대해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밖에 전입자를 위한 구미승마장 무료 승마체험(2회)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이용료도 1년간 면제한다.

새로 전입하는 시민에 대한 혜택 뿐만 아니라 기존 시민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김동현기자

영주시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선비, 꿈과 이상을 꾀다. 현판懸板' 개최

영주시는 3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소수박물관 별관 기획전실에서 '선비, 꿈과 이상을 꾀다. 현판懸板'이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수서원과 영주 지역의 옛 건물에 걸렸던 편액扁額, 명언이나 각종 기록을 담은 기관記板, 시를 담은 시판詩板 등 50여 점이 소개된다. 대표 전시 현판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소수서원 현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봉서루 현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인 만간암에 걸려 있던 만간암과 정안와 현판, 조선시대 명필가 고산 황기화가 쓴 전계초당 현판 등이다. 이번 전시는 프롤로그와 3부로 구성된다. 프롤로그는 현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1부에서는 '배우고 새기다'라는 주제로 소수서원, 의산서원 등 서원에 걸렸던 현판이 소개된다. 또, 2부는 사당과 재실에 걸렸던 현판들을 전시해 '추모, 기리다'의 의미를 새긴다. 3부에서는 '머물며 수양하다'를 주제로 지역의 고객과 정자에 걸렸던 현판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소수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이 현판 속에 담겨 있는 조상들의 꿈과 이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현판은 대부분 한문이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양한 모양과 글씨를 감상하다 보면 글귀의 오묘한 뜻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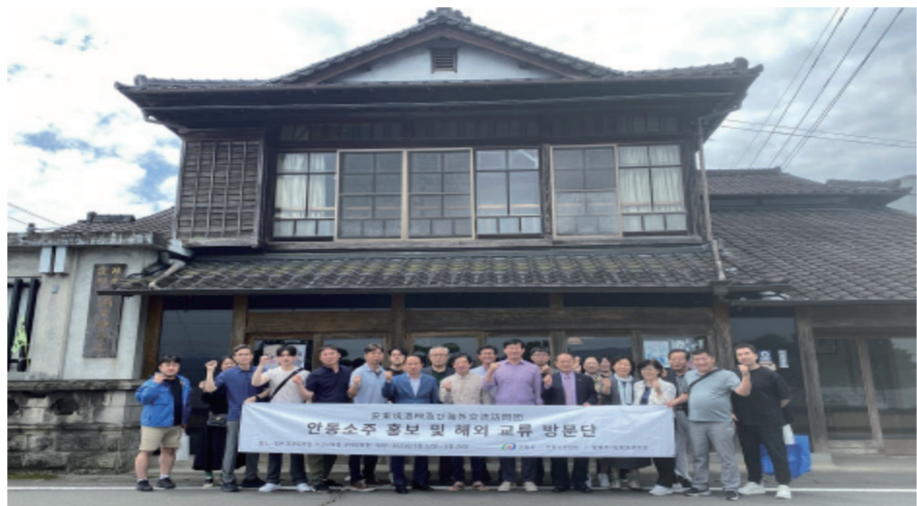
윤근수기자



일본서 안동소주 세일즈맨으로 나선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 맛과 품미로 특급 호평 거두며 수출 교두보 마련 '성과'

주류 유통회사와 긴밀 소통하며 일본시장 진출 청신호 켜져

안동소주가 일본 최대 소주 주산지에서 특유의 맛과 품미로 호평을 받으며 일본 시장 진출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을 비롯한 안동소주 홍보단은 지난 5월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최대 소주 양조장이 모여 있는 규슈지역에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일본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다. 안동소주 홍보단은 가고시마현청과 간담회를 비롯해 가고시마주조협회와 교류 강화, 안동소주 시음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 불모지인 일본 시장 개척에 주력했다. 특히, 후쿠오카. 가고시마, 구마모토 등 일본 소주 생산의 중심지에서 안동소주 시음 홍보, 바이어 미팅을 연달아 가지며 안동소주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후쿠오카 호텔 워 인터내셔널 셀렉트, 마이스테이 가고시마 텐몬칸, 이브스키 로얄호텔에서 진행된 안동소주 시음회는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소비자, 소주 전문가, 주류관계자들로부터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목 넘김으로 깔끔하고 매력적인 술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이른 시일 내 일본 시장에서 맞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관광업계·주류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가고시마 소주 마이스터 협회에서 안동소주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일본 시장 진출의 가



능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마케팅 활동은 일본 주요 일간지와 SNS 소셜 미디어, 블로그 등에 집중 소개되며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가고시마현 유력 일간지인 남일본신문과 야후재팬 인터넷, 한국전문여행정보사이트 코네스트, 주류 마이스터 블로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안동소주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이상학 부시장을 비롯한 안동소주 홍보단은 안동소주 홍보에 그치지 않고 벤치마킹에도 주력했다. 주류 매장 시찰에 이어 7개 양조장을 둘러보고 본격소주와 위스키 증류장비, 제조과정, 마케팅 방법 등을 견학했다. 이와 함께 가고시마주조협회와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일본 주류의 성공노하우, 산업육성방안 등을 들어보고 향후 우호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근수기자

함께 참여한 안동소주 7개 업체 대표자들과 박찬국 경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동소주의 세계화 전략 추진과 실효성 있는 자체 규약 등을 통해 안동소주를 글로벌 명주로 만들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번 방문 기간 중 일본 유통회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안동소주의 첫 일본시장 진출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은 "전통주 안동소주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일류 브랜드로 각광 받도록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성화부터 소주상품 고급화 및 리뉴얼, 체험 콘텐츠 상품 마련, 하이볼·위스키 등 블렌딩 상품 발굴, 세계시장 판로 확보 등 모든 분야에서 총력 지원을 펼쳐 안동소주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도록 열겠다"라고 전했다.

영주 소백산철쭉제 폐막... "연분홍 철쭉 향연 선사"

주말 이틀 동안 3만여 명이 참여해 소백산철쭉제 즐겨

연분홍빛 철쭉이 절정에 이룬 지난 주말(27~28일), 소백산과 서천둔치 일원에서 열린 '2023영주 소백산철쭉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죽(子)-好(好)-樂(樂) ; 알리고-느끼고-함께 즐기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비가 오는 곳도 날씨에도 전국에서 몰려온 등산객과 시민 등 3만여 명이 영주에서 소백산 철쭉의 향연을 즐겼다.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소백산 인근에서만 개최되던 지난 행사와 달리 축제장을 시민 휴식처인 서천둔치(영주교 일대)로 확대해 소백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영주 고유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로 진행됐다. 축제기간 동안 소백산 정상에서는 클래식 피아노 공연 '비바, 클래식 with 영주 소백산'이 상시공연으로 펼쳐졌고 서천둔치에서는 철쭉버스킹과 축하공연, 철쭉 무비극장, 열기구 체험, 문보트 체험, 클라이밍&어드벤처 체험, 플라워 포토존, 영주사과 나눔 이벤트, 희망캠페인 팔찌 만들기, 알자기 대결, 국공체합, 철쭉반지만들기 체험행사 등이 마련돼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소백산 연화봉 정상에서 새롭게 시도된 '비바, 클래식 with 영주 소백산'은 연분홍으로 물든 철쭉을

배경으로 지역 피아니스트들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통해 방문한 등산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화제를 끌었다. '별빛 낭만 열기구'는 5대의 열기구가 창공을 날며 체험객들에게 아름다운 서천을 조망하는 체험을 제공했고 서천에 뜬 초승달 모양의 '달빛 낭만 문보트'는 은은한 조명으로 수변을 밝혀주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재단은 28일 삼가야영장 입구에서 영주 소백산철쭉제를 즐기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영주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영주사과 300개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해 깜짝 선물을 제공했다. 축제 개·폐막식을 생략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 이번 축제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영주 고유의 문화를 느끼고, 축제를 즐기고, 소백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이번 축제의 주제를 잘 살렸다는 평가다. 박민서 영주시장은 "이번 축제는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말 동안 가족이 함께 즐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영주 소백산 철쭉제가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로 발돋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알리기에 나서

기업체와 시민들의 사업 이해도 향상 및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 기대

경주시가 지역 첫 자동차 소재부품 연구기관인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준공된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개방행사인 'ON 미래차! 열린 센터'를 이달 25일부터 11월까지 월 1회 실시한다. 지난 25일은 외동공단연합회 회원 20명을 초청해 견학행사를 가졌다. 이번 개방 행사는 미래차 산업전환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와 고간 전문연구센터 부재로 신제품 개발과 기업지원 사업에 불편을 겪었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먼저 성형가공센터 소개, 미래차 관련기술 동향 및 기업지원 사업 안내, 정부 R&D과제 컨설팅 안내 등의 내용으로 브리핑이 펼쳐진다. 이어 평가동으로 이동해 구축 장비 소개와 시연 등 연구개발 지원에 서부터 장비활용 지원, 사업화 지원까지 기업인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6월에는 경북테크노파크와 협업해 기업지원사업 안내와 참여방법, 향후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기업지원 사업 설명회도 열어 지



역 기업인들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첨단소재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복합재 등을 활용한 성형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이다. 이날 개방행사에 참석한 외동공단 연합회 한동수 회장은 "경주에서 가장 공단이 밀집된 곳에 센터가 건립돼 인근 기업체들은 웃음꽃이 활짝 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 대안 활용에 관련 업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황훈 투자산업과장은 "지역에 첫 자동차 소재부품 연구기관이 건립됨에 따라 미래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 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개방행사는 물론 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많은 기업체들이 연구기관을 적극 이용해 자동차 부품산업의 리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ON 미래차! 열린 센터' 운영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 1시간 정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관계자와 시민단체는 경주시 투자산업과(054-760-2574)로 문의하면 된다.

윤태용기자

의성군,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 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6월부터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의성군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하는 법정 계획으로 의성군은 이번 계획으로 2040년까지 하수도시설 전반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하수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의성군은 하수도 보급률 51%로 각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수도시설이 보급되어 있고 2023년 말까지 안계치리구역과 비안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완료하면 보급률이 5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금성면, 가음면, 안평면 하수도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의성군은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시 현재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최대한

처리구역을 확대해 국비 지원을 받는 등 하수도 보급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용역으로 체계적인 하수도 계획을 수립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하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청송 군민 숙원 '삼자현터널' 개통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효과 유발과 관광산업 탄력 기대



청송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자현터널'이 개통된다.

청송군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지난 2017년 7월 5일에 착공한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가 오는 6월 7일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자현터널은 5월 31일 임시개통(규정속도 30km/h)을 하며, 6월 7일 정식으로 개통(규정속도 60km/h)될 예정이다.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는 국도31호선 현동면 도평리 ~ 부남면 대천리를 잇는 도로에 총사업비 49,354백만원(국비)을 투입, 도로개설 L=4.7km(2차로), 구간 내 터널 2개소(삼자현1터널 L=874m, 삼

자현2터널 L=319m), 교량 1개소(삼자현교 L=80m), 교차로 2개소(평면1, 회전1)를 설치한 도로건설공사이다.

청송군은 공사 준공에 따라 지역 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은 물론, 교통편의 및 도로 안정성이 좋아져 교통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삼자현터널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만큼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관광산업의 탄력과 교통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홍보관 운영

영덕군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에 참여해 지역 수산물과 수산식품을 알리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재)환경해산연구원과 EXCO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5월 31일 '제28회 바다의 날'과 연계해 해양 수산업 발굴과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되며, 전시회는 물론 유명 유튜브 먹방과 붉은대게 나눔이벤트 등 각종 행사가 준비돼 있다.

이 자리에 영덕군은 세용수산, 영덕농수산물영조합법인, 오바다푸드, 더동쪽바다가는길 등 지역의 우수기업 11개 업체와 함께 참여해 홍보관을 운영하고 영덕대게, 청어, 미역, 오징어 등 지역 수

산물을 활용한 각종 상품을 홍보해 전국의 소비자와 국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미역의 주요 성분들을 추출해 개발한 '해녀미역맥주'와 주식회사 해담의 청어를 이용한 강정 '헤링칩'을 소개하는 시음·시식회를 진행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과 상품성을 선보이게 된다.

정성호 해양수산과장은 "기업들의 네트워크 기회 마련으로 영덕의 우수한 수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며, "영덕군이 수산물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환동해 중심 경북!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개최

수산식품·기자재·해양레저 특별관 및 다양한 부대행사 풍성

경북도는 환동해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수산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는 수산식품 및 가공식품, 수산기자재,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수산분야 100여개 업체의 다양한 홍보관을 만날 수 있으며, 경북 6개 시군 홍보관, 관상어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같은 날 경주에서 개최되어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 관계자들이 참관할 것으로 기대되며, 환동해산업연구원, 경북경제진흥원, 6개 시군, 수산자원연구원 등 60여개 도내 기관 및 업체 등이 경북의 해양수산 산업을 소개할 예정



이다.

31일에는 경상북도 어업 대전환이라는 해양수산발전 정책 기조에 맞춰 '경상북도 해양수산 미래정책 포럼'을 통해 지난 4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계획 및 방향, 수산가공업의 활성화 방안 등에 논의하며, 수산기업을 위한 구매상담회, 내수면 양식 창업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개막식에서는 경북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을 발굴해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수상자는 어선어업 부문 김

도관(64세, 포항), 양식 부문 최준식(62세, 포항), 가공·유통·수출 부문 박병률(43세, 영덕), 각 부문별 3명이 선정되어 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한편,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수산물 판매장터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수산물 시식행사에서는 송어 그라브릭스 샐러드, 경북어촌밥상 3종 세트 등 경북 지역의 신선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으며 특히, 박람회 기간 중 매일 1,000마리의 명품 붉은대게를 제공하는 무료증정 이벤트도 개최된다.

이밖에도 31일에는 유명 유튜브



'뜨앙', 6월 1일에는 '수빙수'가 박람회에 방문해 참가업체 및 관람객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할 계획이며 제트스키, 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 전시품과 관광 정보도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는 3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5천원 할인쿠폰(5,000원 한정)을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와 엑스포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를 통해 해양수산 관계자와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참여 기업들은 제품 홍보를 통해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는 앞으로 환동해 중심지로의 역할을 다하고 해양수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협약식 개최

신도시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예천군·안동시 머리 맞대

예천군은 30일 오전 11시 예천군 통합관제센터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와 함께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권기창 안동시장,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과 도·시·군 의원, 양 지자체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활동 운영·지원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운영 △대

학·병원·공공기관 및 기업·단체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수거 △지역상품권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상생 행정협의회는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양 의회 규약 보고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신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협의회와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신도시 발전방안을 위해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호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데다 의결체제와 집행체제를 갖추고 별도의 실무협의



회를 운영해 실효성이 큰 만큼 안동시와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신도시 주민들께서는 불편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예천군과 안동시에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예천군과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협약식 가져 '도청 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 맞손'

도청 신도시 내 주민 불편사항 해소 위한 소통의 창구 활짝 열어

경북도청 신도시 지역의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동시와 예천군이 공식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안동시는 안동시의회와 함께 30일 경북도청 신도시 통합관제센터로 출장해 김학동 예천군수,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을 만나 신도시 내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월 예천군과 안동시가 상호 공문을 통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신도시 내 주민 생활 불편을 함께 해소하자고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지자체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이래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신도시 내 주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행정 일원화에 노력해 왔으나, 공식적인 규약이 없어 지속적인 협력이 어려웠다.

이에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규약을 고시하고 본격적으로 안건을 협의하면서 신도시 내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양 지자체는 각 부서를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중교통, 도시조성, 생활환경, 클린환경,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



로운 안건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양 지자체장과 양 지자체 의회 의장이 차담을 시작으로 규약(안) 보고, 인사말, 협약서 서명, 선물교환,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북도청이 이곳으로 이전 결정될 때처럼 다시 안동과 예천이 두 손을 맞잡았다"라면서, "신도시가 경북 북부권 행정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가겠다"라고 전

했다. 이어 "신도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발전하여 신도시 주민들에게 좀 더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양 지자체는 6월 중 각각 합의된 규약을 고시하고 행정협의회가 구성 완료됐음을 경북도에 보고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K-JAZZ 리브레터' 공연 개최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중가수 주현미가 재즈 연주자 필윤밴드와 함께 'K-JAZZ 리브레터' 공연으로 청송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6월 1일, 19시 30분부터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며 관람비는 무료이다.

공연은 주현미의 데뷔곡인 '비 내리는 영동교'를 비롯하여 '리브레터', '울면서 후회하네', '신사동 그 사람' 등 주옥같은 명곡들에 필윤밴드의 연주가 더해져 청송 군민들의 마음을 녹여줄 예정이며, 매력적인 보이스의 재즈 보컬 이경우가 출연해 '목화밭', '해남아가씨', '켄세라' 등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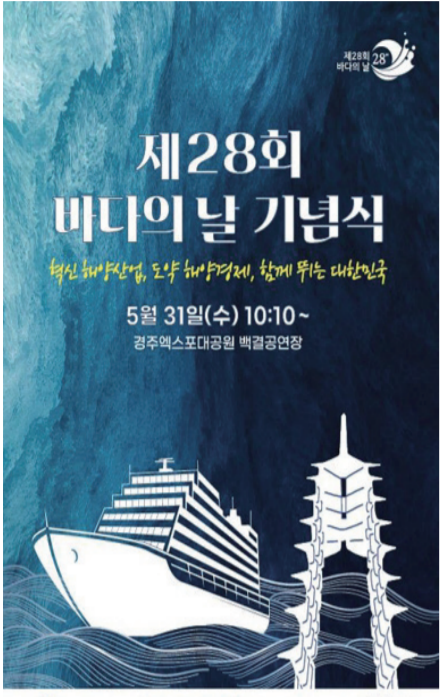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군비 예산을 절감하고 다양한 공연을 군민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K-JAZZ 리브레터 With
 주현미, 이경우, 필윤밴드
 공연일 2023. 6. 1. (목) 19:30
 공연장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무료

경주에도 바다가 있다. 해양문화축제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 열려

해양역사도시 경주, 해양레저와 원전 첨단산업 연계한 해양관광 시너지 배가에 전력



수려한 해안선 100리를 자랑하는 경주에서 오는 31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백결공원장에서 정부요인, 시민, 관광객 등 1,500여명이 참여하는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바다의 날은 매년 5.31일로 82년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 설치를 기념하는 날로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로 올해 28회째를 맞는다.

'혁신 해양산업, 도약 해양경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해양수산부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한다.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강동훈 해군참모차장, 김석기·정희용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남한권 울릉군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정태순 한국해운협회장, 문해남 한국해양재단이사장, 이철우 경주시의장,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해양산업 관련 기업체, 해양수산인을 비롯해 시민, 관광객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해군 군악대와 경주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 식전행사 이후

유공자 포상, 기념사, 미래비전 구현 이벤트, 폐식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포상 친수자로서 은탑산업훈장 김영득 이스타마린 대표, 강수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홍조근정훈장 차형준 포항공대 석좌교수 △산업포장 김동현 성부수산 대표, 김경울 HMM(株) 선장 △대통령 표창(사)한국해양교육연구회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또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해양 신산업 발굴과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 EXPO'도 펼쳐진다.

이번 엑스포는 수산식품 가공품, 기자재, 레저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회 △세미나 △상담회 △수산 체험관, 수산물 시식행사 등 부대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경주에서는 천연식품, 감포전초젓갈 등 지역생산 해산물 가공업체 7개 업체와 경주 이사금 쌀, 한우 브랜드 천년한우 등 지역 특산물도 전시·판매한다.

시는 기념식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 및 학술대회 등을 열어 바다의 날 기념식을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해양축제로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역사, 관광휴양을 융합한 동해안 해양 르네상스 조성을 위해 국립 선부역사기념공원(113억), 문무대왕 성역화(220억) 및 해양역사관(121억) 건립, 해양레저관광(490억) 거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착공한 차세대 원전인 SMR R&D, 실증, 혁신기술 개발 첨단연구시설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6,354억)와 최근 경주에 첫 제조업 중심의 SMR 국가산단(3,046억) 유치에 이어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723억) 등 경주 바다를 해양 르네상스와 연계한 첨단과학전초기지로 조성해 나간다.

주낙영 시장은 "28년 만에 해양역사도시 경주에서 뜻깊은 바다의 날을 맞아 경주바다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다의 잠재력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내륙의 풍부한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문무대왕 등 수많은 해양 호국역사문화와 비경을 품고 있는 경주바다를 연계한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해양 레포츠 저변확대에 단초로 삼고 원전 첨단산단과 연계한 해양관광 시너지가 배가 될 수 새로운 도약을 준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태용/기자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주)한솔건업 60억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경시는 5월 3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내 신규 투자 업체 (주)한솔건업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황재용 시의회 의장, 서정식, 진후진, 신성호 의원, (주)한솔건업 노용규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주)한솔건업은 가설 건축자재 및 건설기계 공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향후 60억원을 투자하고 15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주)한솔건업은 수원, 상주에서 경영하던 기업으로 서울과 부산의 중간지점인 문경을 유력지로 확신하여 신규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Covid Blue 후장기화된 경제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적극적이고 벽이 없는 기업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문경시에서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시의회 의장은 문경시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해



봉화군은 지난 26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학원 등)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실습)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어린이 대상 기도폐쇄 시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실습교육에 참여했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최일선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교육은 사고예방의 첫걸음으로 실습을 잘 받아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수성알파시티, 대한민국 국가대표 디지털 혁신거점 선정

과기정통부'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에 대구, 부산 선정

대구광역시 비수도권 최대 SW 기업 집적지인 '수성알파시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은 지역 내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입지를 혁신거점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초기 조성비(국비 63억/3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총 10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경쟁률 5:1), 3월부터 2개월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면·발표평가,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가 진행됐으며, 치열한 지자체간 경쟁을 거쳐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됐다.

혁신거점으로 선정된 수성알파시티는 ① 지역SW거점기관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DIP)을 비롯

한 11개의 디지털기업 지원기관, ② 139개사, 3,600명 이상의 IT/SW기업의 집적도 ③ 수성알파시티 전체를 ABB 중심의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하겠다는 대구광역시의 강력한 의지 등에서 외부 전문가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대구광역시는 수성알파시티의 산학연 중심의 R&BD고도화를 위해 대구스마트시티센터를 앵커시설로 활용하여 DGIST, 포스텍, 경북대, 계명대 4개 대학의 7개 연구실과 교수 및 석·박사급 전문인력 40여명을 이전·유치하여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 8개사와 R&BD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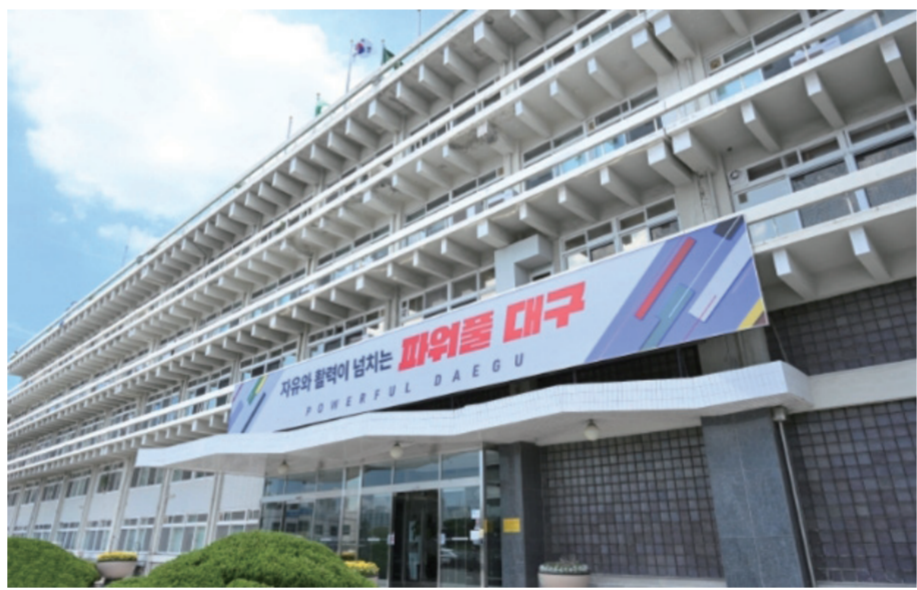
한편, 이번 사업은 지역 중심 디지털 혁신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대구광역시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대규모 디지털 R&D 프로젝트 사업 기획을 위한 정책연구(예타기획)도 올해 신청

을 목표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수성알파시티의 전국적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확인 받았다"면서 "앞으로 예타사업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대표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1호 인증 입암면지역사회보장協, 착한가정 액자 전달

입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영길, 신재성)는 5월 25일(목) 영양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 교육장에서 '착한가정' 인증액자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착한 가정은 매월(2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정기기부 캠페인이며, 마련된 재원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모아행복금고 연합모금사업"을 통해 입암면의 복지사각지대 해

소를 위한 사업비로 전용 사용된다. 영양군 1호 '착한가정'으로 인증된 이길수 씨는 육군 중령으로 퇴직 후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며 평소 자녀들에게 일상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매월 3만원 소액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입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재성 공공위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한가정 기부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이길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착한가정은 현재 15개소이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삼동면 물건항 일원...해양수산인 등 180여명 참여 - 바다현장 선포·수산종자 방류·해안정화 활동 등 펼쳐



경상남도 남해군은 지난 26일, 류해석 부군수, 강대철 군의원, 경남도 성홍택 해양항만과장 등을 비롯해 해양수산단체 및 어업인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을 기념해 삼동면 물건항 일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해양수산분야 유공자 도지사 표창과 어업인 대표의 '바다현장'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수산종자 방류와 해안정화 활동 등도 펼

쳐졌다.

수산종자 방류행사에는 돌돔 2만 4천미와 해삼 4만미가 방류됐다. 이중 해삼 종자는 한국해삼협회 경남지회에서 후원했다. 수산자원 증강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어업인 스스로 바다자원을 지켜나간다는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또한, 남해군을 방문한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 및 외국인 명예기자단들이 수산종자 방류행사와 해안정화 활동에 함께해 청정한 남해바다

와 남해군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류해석 부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남해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해양수산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여 사시사철 관광객이 넘치고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함께하는 바다, 가치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인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산업통상자원부, 5년 내 “배터리·소재” 5대 수출 품목으로 키운다

향후 5년 내 배터리 및 소재가 5대 수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이후로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자동차 등 7개로 고정돼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5.25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을 방문해,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과제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연구원 황경인 박사는 배터리 및 소재가 5년 내 우리의 5대 수출 품목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극재 수출액은 지난해 2.6배 증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성장중이며, 배터리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금년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배터리 및 소재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①수출품목 고도화, ②수출품목 다변화, ③수출지원 확대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우선 수출품목 고도화를 위해 하 이니켈 양극재(니켈함량 95%이상), 실리콘 음극재(실리콘 함량 20%이상) 등을 개발한다.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를 위한 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ESS용 레독스 전지 등 삼원계와 배터리와 양극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글로벌 점유율이 35%에 달하는 LFP 배터리에 대한 R&D 과제를 지난해 착수한데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나트륨 배터리도 신규과제를 기획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수출 소부장기업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소부장 기업과 배터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R&D 과제를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들이 개발한 소재 등을 실제 배터리에 실증해 볼 수 있는 공용 인프라인 “배터리 파크”도 전국 5개소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이차전지 산업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농특산품 생산업체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참가 8개업체 20여개 제품 출품 바이어 상담 및 홍보 실시

남원시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국내 최대 농식품박람회인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남원 농·특산물을 홍보할 예정이다.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은 농산물, 식품 및 식품제조 관련 용기(기계)를 전시하는 박람회로 남원시는 이 행사에 총8개 부스를 운영해 국내·외 수출·입 바이어, 해외대형 유통매장 벤더, 국내식품 관련 유통업체 및 해외에 거주하는 수입바이어를 상대로 수출 상담과 시식·시음을 통한 홍보로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는 남원 우수 농·특산물 수출생산업체 8개 업체가 참여하며, 남원시는 부각제품(김부각, 다시마부각 등), 참기름, 유지류, 치즈떡, 모시송편떡과 요즘 K-푸드로 떠오르고 있는 떡볶이, 면, 육, 잡채를 비롯한 전통식품을 출품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거러쳐 발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미주지역 등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남원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며, “미국계 대형유통매장인 코스트코 납품과 국내 대형유통 매장 홈플러스, 우체국 소평물, 쿠팡 등 유명 포털 온라인 판매, 직거래장터 참가, 미국·동남아 등 해외수출 등 다양한 판매 활동으로 인한 매출 확대는 물론 고용인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올여름 무더위 예상, ‘에어컨자가점검’ 필수

기상청에서 발표한 2023년 3개월(5~7월) 기후 전망에 따르면, 6~7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 6월부터 에어컨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어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에어컨 A/S 중 약 30%는 고장이 아니거나 부품 교체 없이 간단한 조치로 해결된 걸로 나타났다. 특히 리모컨 건전지 방전, 전원 콘센트 연결 불량 등은 고객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한 자가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은 벽면 콘센트에 단독으로 연결한다. 멀티탭으로 다른 기기와 병행 연결하거나, 전원 코드를 연결한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된다.

▲전원 코드는 콘센트 끝까지 확실하게 꽂고 손상된 전원 콘센트엔 연결하지 않는다. 에어컨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서비스센터에 A/S를 신청한다.

▲실외기 통풍 상태 확인도 필요하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외부로 잘 방출되어야 한다. 실외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바

람 방출구를 막으면 과열로 화재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에어컨 성능도 저하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낙엽, 쓰레기 등도 화재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기적으로 제거한다.

▲임의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않는다. 이사 등으로 인해 재설치가 필요할 경우, 공인된 설치기사에게 의뢰한다.

에어컨 작동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어컨 전원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에어컨 전원은 벽면 콘센트에 꽂고 에어컨 차단기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한다. 가정집 차단기는 대체로 신발장, 부엌, 현관 입구에 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리모컨은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건전지 수명이 다했으면 교체하고, 내부에서 액이 나와 리모컨 단자가 부식되어 동작하지 않으면 리모컨 자체를 교체한다.

리모컨은 동작 방식에 따라 점검 방법이 다르다. IR(적외선) 방식의 리모컨은 휴대용 카메라 앱 실행 후 카메라를 향해 버튼을 누르며 센서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블루투스 방식 리모컨은 휴대폰의 블루투스를 켜고 리모컨의 페어



링 버튼을 눌러 블루투스 연결 항목에 리모컨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에어컨 관리의 기본인 먼지거름 필터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에어컨은 후면에서 공기를 흡입해 먼지거름필터를 거쳐 전면으로 시원한 바람을 배출한다.

먼지거름필터가 오염되면 에어컨 내부로 먼지, 세균 등이 유입되거나 시원한 바람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여름철엔 최소 2주 간격으로 먼지거름필터를 청소한다. 먼지거름필터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부드러운 솔로 세척하고 깨끗한 물로 헹구준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거나 물이 뜨거우면 필터가 손

상될 수 있다. 세척 후에는 그늘에서 12시간 이상 충분히 말린 뒤 조립한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시험 가동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는지 확인한다. 에어컨을 냉방 모드로 설정한 뒤 희망 온도를 실내 온도보다 2~3°C 낮게 설정해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면 된다.

여름에 앞서 에어컨을 미리 점검하는 소비자가 증가 추세다. 삼성전자서비스가 3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 에어컨 사전점검 캠페인에서 고객들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100% 증가했다.

최만식/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분야 청년 취업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5월 30일에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3 상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전문 취업박람회로 정보보호 분야 재학생, 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기업의 전문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직자 간 만남의 장”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정보보호 교육, 컨퍼런스 등 오프라인 행사가 축소되면서 청년들은 생생한 정보보호 산업동향이나 기업정보 등을 구하기 어려웠으며, 산업계 또한 구직자들과 대면할 기회가 적어서 적시에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과기정통부와 KISIA는 기업-구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산업계 동향, 기업별 채용계획과 구직자들의 최근 희망을 공유하면서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기회도 얻고, 자기 소개서 작성, 면접 요령 등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5월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행사 규모도 전년보다 확대되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및 보안관계 전문기업 등 총 26개 국내 주요 정보보호기업과 유관기관이 참가한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구직자 등은 5월 25일까지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행사기간 내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질의 정보

보호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KISIA 이동범 회장은 “이번 정보보호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의 역량을 펼치고, 기업들에게는 함께 성장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 정보보호산업계의 지속적인 인력수급격차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은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있는 인재들이 적시에 산업현장에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23 상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2023년 5월 30일(화) 10:00 ~ 17:00

과학기술컨벤션센터 B1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1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관)

참가대상: 정보보호 분야 구직자(대학생/신입사원/경력직)

행사내용:

- 기업별 채용정보 공유 및 채용설명회
- 기업별 채용설명회
- 정보보호 분야 취업박람회
- 기업별 채용설명회
- 기업별 채용설명회
- 기업별 채용설명회

문의처: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운영사무국 T. 02-6749-2039, 2011 E. mh0327@kisa.or.kr

UNESCO 세계지질공원, citaslow, 산소카페 청송군

청송사과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청송사과의 첫 경매가격은 그 해 사과 시세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자존심, 청송사과. 사과는 빨갛다는 통념을 깬 혁신 브랜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경북교육청, 과학기술원과 이공계 인재 육성에 뜻 모아!

경북형 과학중점학교-과학기술원 공동 교사 간담회 실시



경북교육청은 지난 25일 청도고등학교에서 경북형 과학중점학교와 4개 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교사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교사간담회는 구미고등학교를 비롯한 11개 과학중점학교 교사 40명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입학담당관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원의 입학담당관은 30분씩 학과 소개 및 입학 관련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으며, 과학중점학교

교사들의 과학기술원의 장단점, 입학 전형, 진로와 관련된 질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도고등학교 한 선생님은 "경북형 과학중점학교는 학교마다 특색 있고 다양한 수학과 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이공계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과학중점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매년 과학중점학교에 2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이공계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과학중점학교와 과학기술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군산교육지원청, 군산남중학교 이전·신설 추진

학교 구성원 찬반투표 결과 참여자의 70.7%가 이전·신설 찬성... 2017년 3월 목표

군산교육지원청은 군산남중학교 이전·신설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7년 3월 예정으로 동북부권 조촌동 디오션시티 내 학교 부지로 이전·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3일 군산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서 동북부권 이전·신설 대상학교로 '군산남중학교'를 권고함에 따라 5월 24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전·신설 제안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어 5월 24~25일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총 1,077명 중 70.7%인 761명이 이전·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돼 군산남중학교를 최종 이전·신설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디오션시티, 신역세권 등 동북부권 지역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 증가로 중학생 원거리 통학문제가 심화되자 군산교육지원청은 2021년 10월 '군산시 중학교군 학생배치계획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부권 중학교의 이전·신설을 추진해왔다. 현 부지는 이전에 확정된 군산상일고 부지와 연계해 미래진로직업체험관, AR·VR스포츠센터, 유아(숲)놀이터, 실내클레이밍 등 대규모 문화

체험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유아·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과 더불어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채워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희 교육장은 "군산시 중학생들의 배치 및 통학문제 해소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는 군산남중학교 학생과 학부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학교 이전·신설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2027년 3월 이전·신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경기도교육청, IB 프로그램 수업·평가 전문가 키운다 'IB 국제공인 전문강사'양성

IB 프로그램 실천과 공유 과정 세계 각국 코치에게 수시 피드백

경기도교육청이 IB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과제인 IB 전문가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IB 국제공인 전문강사 연수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IB 관심학교(25교)의 탐구·실험·성찰 기반의 수업과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27일부터 초·중·등교사 70명을 대상으로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교사(초 25명, 중 25명, 고 20명)들은 192명 지원자 가운데 IB 프로그램 이해도, 연수 후 현장 실천 계획 등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IB 본부와 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했고, 본부 교사 전문성 개발팀과 협력해 내년 2월까지 총 141시간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는 ▲대면 워크숍(5월, 11월,

2024년 1월) ▲실시간 온라인 연수(15시간) ▲IB 전문가 수시 피드백으로 진행한다. 특히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행한 과정과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며 세계 각국의 코치들에게 수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있어 교사들의 기대가 높다. 첫 대면 워크숍은 개념적 이해를 주제로 ▲교육과정 구성 ▲분류, 표현, 일반화 전략 ▲내재화와 전이 ▲실행 전략 탐구 ▲IB 수업 참관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연수에 참여한 중학교 과학교사는 "예전부터 IB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학습하며 전문 역량을 키우는 것에 목말라했는데, IB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연수가 있어 지원했다"라며 "함께 연수받고 토론하며 실제 적용

하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좋았고, 같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교사가 공동 성장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진지하고 열정적인 연수 분위기를 표현했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IB 프로그램에 대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수업과 평가를 확산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원격콘텐츠를 개발하여 2,500여 명의 교사가 연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계한 IB 전문가 양성 연수를 준비 중이다. 최만식/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본격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 광산구와 함께 광산구를 제3기(2023~2027년)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정할 목표로 오는 31일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교육감은 취임 이래,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이라는 교육상을 설정하고 광주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인 주시민의식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생 국제교류 활동과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힘쓰는 중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주목했다. 사업 유형은 ▲세계 시민 양성형 ▲글로벌 교원 육성형 ▲해외 인재 유치형 등으로, 그동안 시교육청이 학생, 교원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 국제교류 사업과 목표가 일치한다. 이에 주도적으로 광주시, 광산구 등과 일체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에 나섰다. 다양한 세계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는 최적의 글로벌 교육지역 광산구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광주시, 광산구와 공동으로 주민, 학부모, 교원 대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각 계각층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거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서를 오는 31일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 6월 말경 최종 교육국제화특구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이정은 교육감은 "광산구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우리 광주 학생들이 민중, 인권, 평화, 문화 다양성 등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5일 관내 초·중·고 교장 22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자살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보내는 언어적, 신체적, 상황적 신호를 알아차리고 위험성을 파악하여,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교관리자의 역할 및 학교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최근 학생들의 자해 및 자살사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전 예방, 위기개입, 사후 개입 방법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자해 및 자살사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

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정광윤 교육장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학교에서 학생의 위기 신호를 신속히 알아차려 적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총총하고 체계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독도를 지키던 조상의 얼을 되살린 울진교육지원청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은 조선시대 수토사의 활동 상황 재현을 통해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알고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고자 5월 26일에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했다. 행사는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해·기성 중 학생과 구산리 주민 등으로 구성된 108명이 조선시대 수군복장을 갖추고 수토사 출정 준비, 수토사 가장 행렬, 출병 재연, 고유제, 판옥선 승선, 수토군 출정 등의 순으로 시연했다. 평해중 2학년 김○○ 학생은 "수토사 뱃길 재현 체험을 통해 수토사의 역사성을 알 수 있었고 친구들과 선배들의 생각도 들 수 있어서 독도는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황석수 교육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우리 영토의 소중함과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울진 대풍헌(경북 기념물 제165호)이 있는 구산항은 조선시대 울릉도·독도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한 삼척진장과 월송만호의 수토사(搜討使)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역사적 장

소이다. 울진군과 울진문화원에서 2011년부터 수토사 뱃길을 재현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는 평해·기성중 학생들이 수토사 뱃길 재현에 참여하여 독도를 지키던 조상의 얼을 되살렸다. 장문화/기자

Welcome to 봉화!
봉화군에서 함께 살아요!

전입축하금 지원(봉화사랑상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 시 10만원 전입 후 1년 경과 20만원 지급 2023. 1. 1.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679-6143) 	전입 청년 주택임차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 ~ 49세 청년 전입자 월 10만원씩 최대 3년 지급 2023. 4. 17.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679-6143)
가업승계소상공인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 ~ 49세 가업승계 소상공인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 *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679-6188) 	가업승계농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세 미만 가업승계 농업인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 2023년 하반기 중 시행 예정 * 문의 : 농업기술과 기획교육팀(☎ 679-6835)

인구 3만+
봉화사랑! 주소찾기 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봉화군

영등포구, '세계환경의 날' 맞이 지구사랑 친환경 행사 개최

6.2.(금) 10시부터 유공자 표창, 자기발전 솜사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진행

영등포구가 제28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6월 2일 오전 10시 당산근린공원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5일은 28회를 맞은 세계환경의 날로써, 구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love earth, love green' 주제로 기후위기 속에서 지구를 사랑하고, 녹색성장으로 도약하는 영등포라는 의미를 담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환경보호 인식을 높이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구는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개인,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 10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한다.

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구는 생활 속 탄소중립과 친환경 실천 활동을 이끌기 위한 에너지 절약, 1회용품 줄이기, 예코 마일리지 안내, 탄소중립 실천법 등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홍보활동도 펼친다.

한편 구는 ▲지역 내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급식시설에 친환경 조리장치(인덕션)와 조리용 저감장치(실내는 공기청정기, 외부는 집진기 등) 설치 ▲ESG 연계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업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을 추진해 생활 속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구는 2050 탄소중립 시민 실천단, 시민문래청소년센터와 함께 ▲자기발전 솜사탕-비눗방울 만들기 ▲컬리링벽 색칠놀이 ▲미니 전통부채와 해초퇴치 게피 가랜드 만들기 ▲해양업사이클링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의 장을 진행한다. 또한 QR코드를 이용해 지구를 위한 다짐 글 남기기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번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해 세계환경의 날 축제는 지구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연과 인류의 공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등 건강한 지구를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원주시, 2023년 전통불빛축제 참여 단체 공개 모집

원주시는 2023년 전통불빛축제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오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통불빛축제는 원주천을 중심으로 전통 대형 장엄등, 터널등을 설치하여 원주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사초롱 달기, 소망의 소원지 달기 등 체험행사도 곁들여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원주시 문화 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한 비영리 예술법인·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원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원주시민들에게 한층 더 풍성해진 볼거리를 제공하고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경북도, 말레이시아서 글로벌 K-관광선점 위한 본격 '첫발'

이철우 지사, 말레이시아 여행사협회(MATTA)와 관광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관광 수요 조기선점을 위해 동남아 중심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관광교류전을 개최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철우 도지사, 다독 탄국량 말레이시아여행사협회(MATTA) 회장,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말레이시아 방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어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표 및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해 경북관광 홍보설명회를 열고 K-컬처에 기반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경북 관광 수요로 전환하고자 방문

을 유도했다.

또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경북이 가진 계절별 관광지과 한류 촬영지, 역사적 관광지 등을 적극 알릴 것으로써 「REAL KOREA-경북」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경주(유네스코문화유산, 경주세계엑스포공원, 경주월드, 보문단지, 황리단길) △포항(스페이스워크, 영일대 해변, 호미곶, 청하시장, 사방기념공원, 구룡포) △안동(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만유정, 월령교) △문경(문경새재,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오미나라, 활강랜드, 짙라인, 레일바이크)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관광지와 지역별 관광지를 함께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27일 오후에는 현지 호텔과 대형

마트에서 이철우 지사와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대사, 장재형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말레이시아 지사장, 이마태오 KMT 회장, CHLOE CTG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경북 푸드 홍보전 및 경북농산물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참외, 사과, 포도 등 경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북 관광두레 사업체에서 판매 중인 한과, 참외빵, 생강청 등 가공식품을 시식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K-경북 푸드 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현지 교민초청 간담회를 통해 경북 푸드 홍보와 관광교류 등 협력 강화 의지도 함께 다졌다.

경북도는 이번 홍보전을 통해 우수한 경북 농산물에 대한 현지인들

의 많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하고, 향후 이를 경북의 독특한 관광 상품과 연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쳐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연간 상호 인적 교류가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나라"라며, "이번 말레이시아 관광교류전은 K-콘텐츠가 가득한 관광도시 경북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동남아에 불고 있는 한류 K-드라마, K-Foods, K-Pops 등 다양한 한류상품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해 글로벌 관광시장에 경북도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세종시 "환경교육주간 맘껏 즐기고 보물지도 완성해요"

5~11일 제2회 환경교육주간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환경이 미래다'를 주제로 시민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다양한 환경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이 6월 초 세종시 전역과 온라인을 수놓는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환경교육센터는 오는 5일 환경의 날부터 11일까지 7일간 제2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교육주간에는 지역의 환경 관련 기관·단체의 주도로 시민들이 직접 배우고 참여하는 다양한 환경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환경교육주간에서 주목할 점은 세종시 내 각 지역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다른 날짜에 행사가

열리므로, 시민들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행사가 열리는 날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선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는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체험, 전시 프로그램이 조치원읍과 행복도시 동(洞) 지역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만들기 행사로는 나비 만들기(세종동), 이끼를 활용한 테라리움 만들기(새롬동), 태양광 태널 자동차 만들기(아름동), 커피박 탈취제 만들기(보람동), 플라스틱 재료 고체삼푸 만들기(어진동)가 전개된다.

이외에도 장난감 조각을 이용한

핑크아트 제작(나성동),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험(고운동), 물물교환 어린이파티(도담동), 탄소중립정책 세미나(어진동)도 준비되어 있다.

조치원읍에서도 친환경 공방을 비롯한 탄소중립실천마을 힐링여행과 친환경 유용미생물(EM) 활성액 만들기 행사가 방문객을 기다린다.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펼쳐진다.

대회에 참가할 어린이들은 4일까지 사진 신청을 하고, 작품은 5일부터 9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환경교육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생활자원회수센터 VR

가상 견학 체험과 세종시 맞춤형 시민환경교육과정도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행사 참여 후에는 추첨을 통해 환경교육교구를 선물하는 '세종이 그린(e green) 보물지도 인종 이벤트'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행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행사 사항은 시청 누리집 또는 세종특별자치시환경교육센터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산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교육주간으로 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의 다양한 환경 기관·단체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www.k-oceans.co.kr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Korea Oceans and Fisheries EXPO 2023

5.31수-6.2금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명품 '붉은 대게' 먹고 가시'게'~

명품 '붉은 대게' 매일 1,000마리를 무료로 즐겨보세요!
 참여 : (사)경북붉은대게통발협회
 수량 : 매일 1,000마리 (행사기간 중)

토속 관상어 전시

여러 종의 관상어 구경하고 금붕어도 무료로 분양하세요~

★ **참관 포인트**

신선한 수산물·수산 식품을 한자리에서!

- 내고향 수산물 판매전, 수산식품 시식행사, 간편식 모음전 등

바다와 만나는 시간!

- 해양수산 체험관, 토속어류 / 민물고기 특별관, 귀여귀준 / 어촌특화 특별관, 해양헬스케어 특별관, 해양환경 특별관 등

올해 여름 휴가 준비, 해양수산엑스포에서!

- 해양·수상레저 특별관 (요트, 보트, 제트스키), 지자체 관광지 등

해양수산 전문가 초청 포럼·세미나

- 구매상담회, 해외 수출 상담회, 기술 시연회 등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사무국
문의 | 053.601-5256



자세히 알아보기

[주최]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주관] mire 원동해산업연구원
[후원] 해양수산부

영양 들어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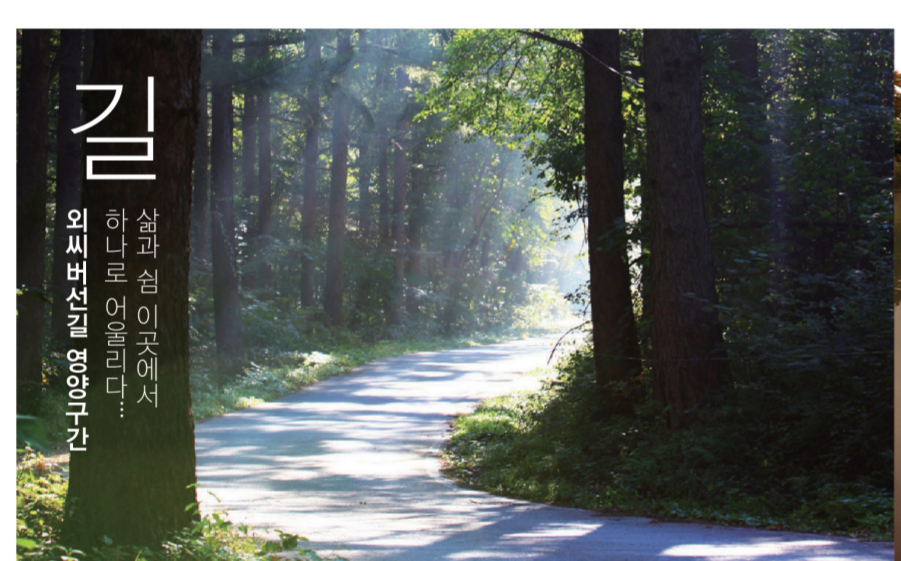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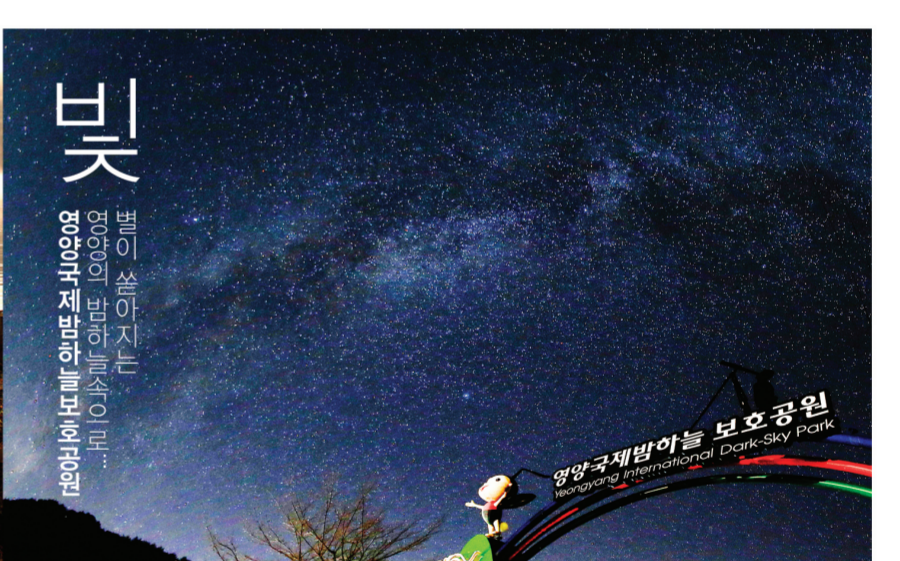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영이
영양이 영영이 영영이



물
영양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얼
영양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 영조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